

산업부, 180개 초격차·산업원천기술 확보에 1.9兆 투입

글로벌 기술협력 종합전략

국내기업·해외 연구기관 공동연구
국제협력 필수인 기술 대상 추진
R&D 올 5.8% → 15%로 확대 계획

정부가 국제협력 R&D 투자를 확대해 국내 단독으로 개발이 힘든 180가지 초격차 급소기술과 산업원천기술 확보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방문규 장관 주재로 주요 기업 CTO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글로벌 기술협력 종합전략’을 발표했다.

간담회에는 삼성SDI 장혁 부사장, 현대자동차이종수부사장, 한화에너지 스페이스 강석철 CTO, CJ바이오 신용욱 CTO 등이 참석했다.

이번 종합전략에 따라 산업부는 2024년부터 국내 단독 개발이 어려운 80개 초격차 기술과 100개 산업원천기술을 국내 기업과 해외 연구기관의 공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기술협력 종합전략 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동연구 방식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총 180개 기술 확보에 약 1조9000억원을 투자한다.

우선80개 초격차 급소기술은 첨단산업의 벨류체인내 국내 기술력이 취약한 핵심기술로, ‘차세대 인터포저를 활용한 첨단 패키징 기술’, ‘서비스 로봇용 다중감각 지능 모듈’ 등 반도체와 로봇

등 11개 분야 기술이다. 이런 기술을 단기간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해 2024년 1487억원을 투입해 48개 기술개발에 착수하고, 2030년까지 총 1조2000억원을 투자한다.

100개 산업원천기술은 ‘차세대 AI 컴퓨팅·반도체’, ‘세포 재생 신약’, ‘이산화탄소 포집력이 향상된 식물’ 등 해

외 원천기술을 토대로 국내 산업의 차세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이다. 이들 기술 확보를 위해 산업부는 MIT(로봇·디스플레이)와 스탠포드(AI·바이오)등 최우수 연구기관에 ‘산업기술 협력센터’를 설치하고 공동연구를 추진, 2024년 약 50개 과제 착수를 시작으로 2028년까지 정부 예산안 기준 6870억원을 투자한다.

이번 국제 공동연구는 해외 Peer Review(동료심사), 무기명 전문가 평가 등 다중 검증을 통해 국제협력이 필수 불가결한 기술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3년 내 국내 개발이 불가능하거나, 해외에서 핵심 원천기술(IP)을 선점한 경우, 국제협력으로 개발기간(1년이상) 및 비용(50%이상) 단축이 가능한 경우, 신시장 개척을 위해 해외 인증, 실증 및 글로벌 표준확보가 필수적인 분야로 한정된다. 또 상시 점검 및 연 2회 이상 진도 점검 등을 통해 과제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아울러 ‘초실감 공간 컴퓨

팅’이나 ‘개인 맞춤형 바이오 인공지능’ 등 세계적으로 연관산업이 형성되지 않은 초고난도 신기술을 세계 최우수 연구자들과 공동 개발하기 위한 신규 예타사업을 추진해 기존 주력산업을 대체할 10대 게임체인저 기술 확보에도 나선다.

이번 전략은 그간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의 R&D 투자에도 불구하고, 국내 R&D 성과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글로벌 협력을 통해 신기술 개발 리스크를 낮추고 최우수 연구기관과 협업해 국내 연구자의 역량을 끌어올리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올해 산업부 R&D 국제협력 규모는 총 3321억원으로 전체 R&D 5조 7000억원의 5.8% 수준에 그친다. 이번 전략에 따라 내년 산업부 국제협력 투자는 5309억원 규모로 올해 대비 60% 증가하고 2028년까지 전체 예산의 15%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산학연기술지주회사, 대기업서 영구제외

공정거래법 등 3개 법률 시행령 개정
중소로 인정… 자금·세제지원 혜택

대기업집단 범위에 포함되는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이하 산학연기술지주회사)와 그 자회사가 앞으로는 기간의 제한 없이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아 자금지원, 세제혜택 등의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산학연협력을 통한 투자 및 대학 보유 기술의 산업화 촉진을 위해 산학연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를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영구 제외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등 3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집단이 재단으로 있는 대학교 내 산학협력단 등이 설립한 산학연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에 대해, 기존에는 회사설립일부터 10년 동안 기업집단 범위에서 제외하던 것을 앞으로는 영구적으로 제외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13여 년 동안 계열연립 유예제도를 운영해 본 결과, 산학연기술지주회사 관련 사익편취 행위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한 사례가 없었던 점, 산학협력법과 현행 시행령 등 관련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법령에 ‘이익배상 사용 제한’, ‘동일인 지배 회사의 출자·채무보증 금지’ 등의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는 점 등 부당한 경제력 집중 우려가 희박하다는 평가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오는 21일 시행될 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정위가 공공분야 담합 감시를 위해 입찰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기관이 늘어나게 되면서, 입찰정보 의무 제출 대상기관의 범위도 앞으로는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으로 확대된다.

또 분쟁조정과 소송절차가 동시 진행

되는 경우 분쟁조정기구가 분쟁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분쟁당사자의 성명과 주소, 분쟁조정 신청의 취지,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해 제기된 소송의 사건번호 등을 수소 법원에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하는 경우 분쟁조정기구가 조정절차를 진행해 이에 따른 조정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 등을 수소법원에 통지하게 된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3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뒤, 오는 12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산학연기술지주회사의 계열연립 유예기간을 단순히 연장하기보다는 합리적으로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영구 제외해 이들 산학연기술지주회사가 중소기업 관련 혜택을 계속 받게 됨으로써 궁극적으로 산학연협력을 통한 투자 및 대학 보유 기술의 사업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현재 대기업집단 계열회사로 편입된 일부 산학연기술지주회사들이 개정 시행령 시행일에 맞춰 대기업집단으로부터 제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노사발전재단, ‘중장년 재취업’ 공모전

장애인 콜택시기사, 대상 수상

노사발전재단이 5일 서울 아트리움 호텔에서 ‘2023년 다시 시작하는 중장년 우수사례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재취업에 성공한 수상자들을 격려하고 성공사례를 공유하는 자리였다고 재단은 밝혔다.

사전 심사를 통해 선정된 개인 8명, 기업 6개사에 고용노동부장관상과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상이 각각 수여됐다.

재단에 따르면 개인부문 대상 김은미 씨는 오랜 경력 단절로 인해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이후 인천중장년내일센터에서 체계적인 상담을 받게 되면서 자신만의 차별화된 강점을 발견

하게 됐다. 김 씨는 ‘여성은 운전기사직으로 취업하기 어렵다’라는 사회적 편견을 깨고 인천교통공사 소속 장애인 콜택시기사로 일하고 있다.

기업부문 대상 삼양식품 원주공장은 강원중장년내일센터의 지원으로 올해 48명의 중장년을 채용해 인력난을 해소했다. 중장년이 업무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을 조정하고, 현장 투입 전 다양한 과업을 경험하게 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뉴욕·파리 등 우수 한식당 5곳 소개

농식품부-한식진흥원

꽃·수길·주아·삼부자·맛있다 선정
지정서 수여·식재료 구매 지원 특전

정부가 지정하는 해외 우수 한식당에 미국 뉴욕의 ·꽃(Cote)·수길(Soogil)·주아(Jua) 3곳과 프랑스 파리의 ·삼부자(Sambuza)·맛있다(Ma-shi-ta) 2곳이 지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은 5일 뉴욕·파리 등에 소재한 우수 한식당 5곳을 발표했다. 지난 1월에 처음으로 뉴욕의 정식, 윤해운대갈비, 아토믹스, 파리의 순그릴마레, 종로삼계탕, 이도, 일본 도쿄의 윤가, 하수오 등 8곳을 선정 한데 이어 두번째이다.

농식품부는 “선정된 한식당들은 완도 전복, 신안 새우젓 등 국산 식재료와 전통식품 명인의 장, 매실청 등을 다양



프랑스 파리의 한식당 ‘삼부자’ 입구. /농식품부

하게 활용하여, K-푸드 수출 확대를 위한 ‘맛의 외교관’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식 품질 향상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추진된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사업은 한식문화 적합성, 국산 식재료 사용, 조리 가격 여부, 위생 등 21개 항목을 중점 심사한다. 지정 한식당에는 지정서 수여와 함께 식재료·식기류 구매 지원 등 특전이 제공된다. /차상근 기자 skc8472@

산업부-EU, 공급망·기술보호 협력 강화

제1차 韓-EU 공급망산업정책대화
탄소중립 이행 세부 협력 논의도

정부가유럽연합(EU)과 공급망위기 대응과 산업기술보호 등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EU 집행위원회 성장총국과 ‘제1차 한-EU 공급망산업정책대화’를 화상으로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EU 공급망산업정책대화는 지난 5월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2013년부터 운영해오던 ‘한-EU 산업정책대화’의 논의 범위를 공급망 협력까지 확대하기로 합의하며 개최됐다.

양측은 글로벌 공급망 교란 및 위기 대응 매커니즘, 모니터링 등 주요 공급망정책을 공유하고 다양화·지능화되는

산업기술 유출에 대비하기 위한 산업기술보호 시스템 등 주요 경제안보 현안에 대해 향후 협력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또 탄소중립 이행, 각국의 첨단산업 유치 전략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분야별 공급망 협력을 위해 ▲친환경 자동차 ▲수소·해상풍력 ▲배터리 ▲반도체 등 세부 산업별 협력 논의도 이어나갔다.

특히 우리 측은 배터리 산업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한 정책을 소개하며 EU 배터리 법안 이행법안 마련 과정에서 우리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당부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 중인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인 ‘CF연합’을 소개하고 EU의 지지와 동참을 요청했다.

/세종=한용수 기자